

## 특집논문

### 한국 남성성의 문화적 (재)구성과 그 계보

강성숙 |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

-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허 윤 | 1950년대 전후 남성성의 탈구축과 젠더의 비수행  
Undoing

노지승 | 남성 주체의 분열과 재건, 1980년대 에로영화에서  
의 남성성

조서연 | 누아르와 멜로드라마 사이의 좌절

-1990년대 후반기 조폭영화의 남성성-

이영재 | 중공업 하이모던 시대의 아시아적 신체

-1970년대 한국에서의 홍콩영화의 수용-



#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

-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강성숙\*\*

## 〈차례〉

1. 들어가며
2. 여성 추모 서술 속 사대부 남성
  - 2.1. 迂闊한 성정 토로
  - 2.2. 清廉한 덕 강조
  - 2.3. 부족한 가장 역할에 대한 悔恨
3. 생계 주체로서의 여성 가장 형상화
  - 3.1. 여성 노동의 가치 인정
  - 3.2. 관계 형성의 주체
  - 3.3. 治産을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
4. 19세기 여성 가장에 대한 평가
  - 4.1. 비교를 통해 강조되는 남성성
  - 4.2. 계획성, 정확성, 효율성
5. 나오며

## 〈국문초록〉

필자는 이 논문에서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여성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가장 역할을 한 여성의 행위와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가장은 가산 관리와 가족 통솔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만, 사대부 남성 가장은 성정의 우월함이나 청렴한 덕을 강조하면서 가정의 살림을 돌보지 못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구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 기초대학 조교수

한 회한을 토로할 뿐이다. 남성 가장을 대신해 여성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여성 생활사 자료에서는 여성 노동의 가치와 치산 능력, 인력 관리 능력이 적극적으로 평가되는데, 이 때, 여성 가장의 미덕이 전통적 부덕(婦德)의 양상과는 배치되는 지점이 생겨난다. 남자, 군자(君子), 성인(聖人)과 비교되는 여성 가장의 치산 행위는 근대적 가치인 계획성, 정확성, 효율성의 가치와 접목되면서 여성 성역할의 영역을 긍정적으로 확장시켰다 하겠다.

핵심어: 조선후기, 19세기, 여성생활사, 사대부 남성 가장, 여성 가장, 여성 노동, 치산, 인력 관리, 부덕(婦德), 근대적 가치, 계획성, 정확성, 효율성, 여성 성역할.

## 1. 들어가며

조선시대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요청되던 성역할은 다분히 관념적이고 관습적 성격이 강하지만 실생활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천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와서 다각적인 자료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20세기 초에 이르는 이 기간은 조선의 가부장적 여성 인식이 변화를 보이는 시기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변동에 맞물려 근대적 여성관이 대두되는 한편, 중세의 여성 인식이 지속되면서 더욱 보수화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생활사 자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성역할이 가장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이념적 차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문집총간』 여성 관련 자료 가운데 근대적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는 19세기 자료[작가 65명, 작품 1179편]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이의 간극과 교섭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조선시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祭文, 墓誌銘,

行狀, 行錄 등의 기록이다. 이들 자료는 상층 남성의 기록이라는 점, 그리고 글의 양식이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 이상적이고 정형화된 삶의 양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지만 18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여성 대상 자료들에는 개성 있는 작자와 그들이 형상화하는 여성들의 면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대인의 실제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유용하리라고 본다.

일상에서 남녀 차이를 살피려면, 남성과 여성을 한 영역에서 비교해야 한다. 바깥 활동이 자유롭지 못 했던 여성의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는 집 안에서 이들의 행위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들이 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家長의 역할을 각기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일상생활, 특히 노동과 경제생활 관련 자료를 통해 남성/여성이 가장으로서 실제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를 살핀다면 관념적 영역에서만 거론되어 왔던 조선시대 남녀 성역할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19세기 여성생활사 자료는 남성 사대부의 여성 추모 기록이기 때문에 인물 형상화 방식과 주제의식이 일정하고 성역할이 드러나는 방식 역시 규범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식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에서는 지배적이고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남성에 대한 기술과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삶의 실상을

1) 성역할 개념은 20세기 중반 성차 연구와 ‘사회적 역할’ 개념이 만나면서 만들어졌다. ‘생물학적 상태에 부과된 기대와 규범’으로 정의되는 일반적 성역할 개념은 젠더 논의에 큰 진전을 가져다주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코넬은 성역할 이론이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되는 남성성 혹은 여성성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겉으로 상보적인 상태를 지향하지만 결국 성역할 내면화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을 고착화하며, 이들 사이에 위계화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실제로 변화하는 양상을 역사적으로 포착하는 새로운 사회과학적 방법을 제안한다. 그 중 하나가 남성성과 경제 구조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그에 따르면 남성성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개인적 정체성’이 아니다. 가족관계와 이를 통해 구성되는 양육, 고용, 노동의 실상 등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R. 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50~59쪽 참조.

포착할 가능성이 엇보인다. 이들 기록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주어진 ‘家長 역할’의 실체를 따라가다 보면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서 살필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노동과 생산에 관련한 일련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지만, 사대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에서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경제활동과 관련한 언급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sup>2)</sup> 그렇지만 가정 내 여성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주목하고 그 성격을 파악하려는 시도 역시 많지 않았다. 여성의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가정 내부에서만 행해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제대로 평가하려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야 가정 내 여성의 노동을 재평가하고, 이를 생계 측면에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김경미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가정 경제를 넘어서는 경제활동이며 특히 양잠과 방적은 국가경제와 관련되는 생산노동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여성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함을 역설했다.<sup>3)</sup> 조선사회는

2) 서거정은 申末舟(1429~1503)의 풍족한 살림 규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신증동국여지승람』 39, 전라도 순창군), 당시 사간원에서 신말주가 농업경영을 위해 양민을 모집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昌原 濱海 임명을 반대했다. (『성종실록』 성종 14년 8월 17일 정축) 이는 사대부의 농업 경영을 통한 치산의 방편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민 모집을 포함한 일련의 농업 경영에 신말주의 부인 설씨의 개입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을 본다. 서울 출신인 신말주가 부인의 본관인 순창을 세거지로 정한 데에는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사대부 관료의 실상을 보여주는 『眉巖日記』에서 柳希春(1513~1577)은 수입과 토지관리, 노비 경영 등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인 송덕봉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희춘이 출사한 기간 동안 부인이 가정경제와 농업경영을 도맡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쇄미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吳希文(1539~1613)이 가사노동을 세밀하게 관리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이 남편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인의 역할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인의 인척이었던 태수 부인을 통해 관둔답을 경작하거나 환상곡을 우대받도록 청탁한 점으로 보아 부인의 경제적 역할이 상당부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한효정, 『17세기 전후 양반가 부인의 경제생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3~22쪽 참조.

3)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2012. 이 외에도 여성이 생계유지를 넘어서 고리대와 상업 활

여성의 생산 노동을 기대하고 경영 능력을 은밀히 요청하면서도 婦德의 명목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교묘히 회피해왔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에서 여성 노동의 일부 양상을 파악했고, 여성의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공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의 일상과 노동이 그 성적 정체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며 평가되는지, 또한 남성 성과의 교섭 관계는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인 남성의 역할에 따라 서로 교섭하는 것이 가정 내 여성의 삶이므로 이들의 관계 속에서 전통 사회의 남성성/여성성의 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어떤 식으로 관념화되고 현실화되는지 밝힌다면 오늘날 위기라고 인식되는 남성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 형성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2. 여성 추모 서술 속 사대부 남성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家長은 ‘가산 관리와 가족 통솔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공법상 한 가족의 대표자이자,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고 家産을 관리하며 가족 부양·분가·입양, 자녀 혼인·교육·징계 등 私法的 통제권이 인정되는 존재였다. 가계의 존속을 중요시했던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족의 생활을 잘 다스릴 책임이 있는 가장의 권위가 특히 강조되었다. 따라서 가장은 가족원들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가족원들은 가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요구되었다.<sup>4)</sup> 『朱子家禮』에서

---

동, 청탁과 수수 등의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례를 통해 여성의 치산능력과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10;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2012, 한효정, 위의 글.

4) 한 가족의 통솔자로서 가장에게는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의무가 부과되었고 이를 어기는 가장은 처벌을 받게 되는 각종 규정이 『경국대전』 시행 후, 특히 숙종 대부터 강화되었다. 그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3년마다 戶口申告에 따라

도 바람직한 家長은 ‘①예법을 지켜 자제들과 친족을 다스리고 직분을 나누어 할 일을 주어 성공하도록 하며, ②재물 사용의 절차를 바로잡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며 집안에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 상하 衣食과 길흉사 비용을 지拂하는 등 구성원과 가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5)</sup> 가장의 역할은 조선시대 남성에게 주어진 권위이자 의무 사항이었으며, 남성성의 미덕으로서 책임감을 가늠하게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남성은 이러한 가장의 책임을 다할 때, 공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그 권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적·윤리적 대표’라는 제도적 기준 외에 남성 가장이 가정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여성생활사 자료의 서술은 여성 인물에 초점화되어 있으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도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구체적 사례를 부각하게 된다. 이 때, 남성 가장은 대부분 가정사에 소홀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

작성되는 戶籍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戶主에게 부과되었다. ②가장은 자녀를 적시에 혼인시킬 의무가 있다. 만일 딸을 30세가 넘도록 혼인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되었다. ③가장은 가족원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할 의무가 있어, 국법을 어기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주동하는 등의 一家共犯은 물론이고 가장이 가족원의 범법행위를 알든 모르든 또는 가담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대상이 되었다.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부장권』, 『한국학보』 2, 일지사, 197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00321](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00321).

- 5) 『朱子家禮』 卷1, 通禮, 司馬氏居家雜儀, “凡爲家長 必謹守禮法 以御羣子弟及家衆 分之以職[謂使之掌倉廩庫庖廚舍業田園之類] 授之以事[謂朝夕所幹及非常之事] 而責其成功 制財用之節 量入以爲出 稱家之有無 以給上下之衣食 及吉凶之費 皆有品節而莫不均壹 裁省冗費 禁止奢華 常須稍存贏餘 以備不虞 凡諸卑幼 事無大小 毋得專行 必咨稟於家長[易曰 家人有嚴君焉 父母之謂也 安有嚴君在上 而其下 敢直行 自恣不顧者乎 雖非父母 當時爲家長者 亦當咨稟而行之 則號令出於一人 家政始可得而治矣.]”



## 2.1. 迂闊한 성정 토로

조선시대 사대부에게는 과거를 보아 관직에 나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이였으므로 글을 읽어 입신하는 일이 우선시되었다. 따라서 학문을 궁구하는 일 외에 다른 영역에 관심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가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양반 사대부의 미덕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아래는 학문을 하느라 생계나 집안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 가장이 자신의 잘못을 그 성정의 우월함으로 돌리고 있는 예다.

(1) 좌모는 한미한 선비였습니다. 집은 가난한데 유학에 오로지 한다고 했으며 성격은 또 우월하여서 모든 생계를 꾸밀 것이 있고 없음과 집안사람들이 주린지 배부른지 아픈지를 만홀히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내가 못나고 **우월**한 것은 옛날과 같았으나, 부인은 오히려 내가 글을 하는 것을 기뻐하였지요, 그리고 가난이 심하다고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또한 이를 편안해하였지요.

<祭故室黃氏文>, 申佐模, 『澹人集』 卷17, 『한국문집총간』 309, 559쪽.<sup>6)</sup>

우월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집이 가난한데도 유학에 뜻을 두고 공부에 매진한다는 것과 집안에 먹을 것이 있는지, 집안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족의 생계와 안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궁핍한 집안 형편을 보고도 생계를 꾸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현실적인 책임을 외면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는 다르다. 가장의 무능력함을 원망하기는커녕 그가 글공부하는 것을 기뻐한다. 가장은 가난한 현실에서 선비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으

6) 김현미 역주, 『19세기 · 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5, 보고사, 2013, 189~193쪽.

며, 아내가 자신의 신념을 알아주고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도 편안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활함’은 생계를 챙기지 않는 무책임함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사대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正道를 지킨다는 자부심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신좌모의 <아내 권씨 이장 우제 축문(故室權氏改窆虞祭祝文)><sup>7)</sup>이나 김매순의 <고조고비 묘지(高祖考妣墓誌)><sup>8)</sup>, <집안 역사 외전(家史 外傳)><sup>9)</sup> 등에서도 가장의 우활함으로 인해 집안 살림이 가난했고, 그리하여 그 아내가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술이 보인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황을 절박하게 그려내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내가 음식과 의복은 물론이고 누에치기, 길쌈, 밭농사부터 집을 건축하고 채마밭을 만들며 닭장이나 소외양간을 만드는 일까지 도맡아 했음을 고백한다. 그렇지만 언술의 방향은 집안을 돌보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집안 걱정조차 하지 않는 가장을 원망하는 데 있지 않다. 가난했지만 근심하지 않은 아내, 그 아내 덕분에 자신의 우활함을 펼칠 수 있었다고 자부하는 가장의 몇몇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언술의 목적이라 하겠다. 아내 덕분에 우활할 수 있었고, 우활해야 자신의 뜻대로 독서하고 이치를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내의 부덕을 통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우활함’은 세태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의지를 예들려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 2.2. 淸廉한 덕 강조

사대부 남성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신의 우활함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적인 관료가 갖추어야 할 미덕이, 살림살이나 治産과는

7) 앞의 책, 181~183쪽.

8) 김기림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3, 보고사, 2013, 183~185쪽.

9) 위의 책, 220~235쪽.

거리를 두어 청렴함을 유지하는 자세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관료로서 토지를 늘려 治産에 힘쓰거나 상업에 관여하여 殖利한 경우 비난 받으며 탄핵당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제로 사대부들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殖産 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기록하는 경향까지 생기기도 했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부 남성에게는 이익 추구에 대한 결벽증과 청렴함에 대한 강박증이 무의식 중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청렴한 덕을 지녀 생활 형편이 쓸쓸하고 박했다. 가평군 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해졌다. 공은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벼슬 살이를 했고 조정 안팎으로 십여 개의 직책을 거쳤다. 그러면서도 곤궁하여도 태연자약했다. 먹을거리가 날마다 떨어지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여덟 식구가 편안하게 있을 데도 없었다. 일찍이 여주에서 잠시 살다가 또 다시 楊根으로 옮겼고 또 양주로 이사했으며, 단양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단양은 소백산 아래에 있는데 서술에서 300여 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 늦게서야 겨우 서울 북쪽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그것도 셋방살이었다.

<祖妣墓誌>, 金邁淳, 『臺山集』 卷10, 『한국문집총간』 294, 470~471쪽.<sup>11)</sup>

(3) 아버님의 성품이 청렴하고 깨끗하여 먹고 사는 일에 힘쓰지 않으시니 어머님이 두루 꼼꼼하게 처리하면서 작은 일도 챙기지 않는 것이 없었고 끝내 집안의 사사로운 일로 아버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았다. 관부에 있을 때에도 티끌만큼도 취하는 바가 없었고 바깥사람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입으로 부탁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의 청렴함에 해가 될까 걱정됩니다.”

<先妣家狀>, 韓章錫, 『眉山集』 卷13, 『한국문집총간』 322, 443~446쪽.<sup>12)</sup>

10)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제도 연구』, 지식산업사, 1998, 230~261쪽.

11) 김기림 역주, 앞의 책, 188~192쪽.

가장의 청렴함은 사대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며 칭송받아야 할 성품으로 인식된다. 욕심, 특히 物慾 없음은 다시 말해, 먹고 사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청렴함은 벼슬살이를 하는 가장의 경우 더욱 강조된다.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렴하여 욕심 없이 곤궁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이상적 清白吏의 모습이기에 문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청렴의 미덕을 부각하고 있다. 관직에 있으면서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면서도 곤궁했고, 가족이 먹을 것, 거처할 곳이 없어 셋방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은 청렴한 사대부의 전범적 모습으로 인식되었다.

가장이 집안 살림에서 멀어질수록 생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는 여성이다. 결국 아내로서 여성은 가장인 남성이 먹고 사는 문제에 무심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생계를 적극적으로 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의식주가 모두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들며 자식과 친족을 양육하고 보살펴야 하며, 또한 가장이 표방하는 청렴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이 훌륭한 내조자로 칭송받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장이 집안에 (살림, 재물, 가산이)있고 없음을 모르게 했다’는 것이다. 가장의 경제 활동과 무관하게 여성은 가장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살림을 잘 꾸려야 하는 역할을 요청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남성 가장이 이상적인 사대부로서의 청렴함을 지키느라 실제로 여성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은 가장으로서 여성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부각하게 되는 조건이 되었다.

### 2.3. 부족한 가장 역할에 대한 悔恨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로서의 떳떳한 性情, 관리로서 갖추어야 할 清廉

의 덕목은 결국 사대부 남성이 아닌 존재를 배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상화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기본적 구성단위인 가족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여성이었다. 아버지이자 남편이며 아들이었던 가장 남성 역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아내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가장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뼈아픈 후회를 토로한다.

(4) 사람들은 죽고 사는 데 모두 정해진 명이 있다고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소. 횡액을 당해 죽기도 하니 어찌 차꼬와 절벽, 함정으로만 죽겠소? 그대는 무엇 때문에 죽었소? (중략) 그대의 성품은 지극하고 관상은 박하지 않으며 그대의 기질은 강함을 받아 병을 오래 버텼소. 그러나 여기에 그쳤으니 이는 곧 내가 어질지 못해서요, 병의 빌미를 말하고 싶으나 그대가 듣기 싫어할 것이요. 채소도 배불리 먹지 못했는데 어찌 인삼, 복령에 기댈 수 있었겠소? 눈 내리는 집에서 밤이면 배가 고파 아이가 울어도도 젖이 나오지 않으니 포대기로 싸서 따뜻하게 해주고는 밝게 웃으면서,  
“훗날 함께 이런 옛날이야기를 하겠지요.”

라고 하였소. (중략) 이곳 친정에서 병을 앓았던 것도 본래 당신 뜻이 아니었소. 좁은 집에 세 들어 살면서 장례를 치르고, 장맛비가 일을 방해해서 집안 식구에게 짐이 될까봐 이곳에 떨어져 있었던 것이요.

과주 집에 가려던 오랜 계획을 당신도 기억하오? 사당을 봉안하고 어머니를 모셔놓고 나서, 나는 머물러 있다가 관을 따라 그대와 함께 돌아왔소. 새벽 베갯머리에 온갖 근심이 일어나고 등불도 없이 낙숫물 소리 들으니 평생의 후회가 문득 깨달음을 얻은 승려와 같소. 죽음은 참으로 슬픈 것이나 살아있다고 어찌 즐겁겠소? 유유한 한 편의 꿈속 같으니 그대 먼저 멀리 구경 가시오.

지난 해 이 날 남쪽 언덕에서 쟁반에는 떡이 담기고 집에는 웃음소리 가득했소. 아이는 찹쌀떡을 이어 놓고 그대는 술을 따랐지. 나는 술에 취해 시를 읊조리니 낮이 가고 저녁이 이르렀소. 그런데 이제는 홀로 쓸쓸히 집에

서도 손님처럼 있다오 그대 혼령이 어둡지 않다면 나를 위해 깊이 근심하라. 남은 꽃들이 집을 두르고 매미는 숲에서 울어대고, 하늘에 구름 유유히 있고 땅엔 물이 흘러가오. 바라건대 내려와서 임하시라. 상향.

<望奠祭亡室文>, 沈魯崇, 『孝田散稿』 6冊.<sup>13)</sup>

심노승은 아내가 죽은 것이 숙명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아내를 나쁘게 대했기 때문[即我無良]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아내가 애초에 타고난 성품이나 관상, 병을 오래 버텼던 강한 기질도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이다. 아내가 죽음에 이른 원인은 평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이 들어서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였는데, 심노승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면서도 웃으면서 나아질 날이 있을 거라 위안하던 아내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면서, 아내의 죽음에 직면해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을 마치 승려가 도를 깨닫는 것과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것처럼 죽음도 후회도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성찰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함께 드러낸 것이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어 행복했던 1년 전 순간을 떠올리며 아내가 없는 현재의 쓸쓸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그 행복한 광경은 쟁반에 담긴 떡과 아내가 따라주던 술로 형상화된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시를 읊조리던 그날은, 아내가 있어 무심히 지냈던 심노승 과거의 시간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내가 사라짐으로써 그 완벽했던 공간은 이제 스스로에게도 낯선 곳이 되었음을 그는 ‘집에서도 손님처럼 있다[在家如客]’고 표현했다. 심노승의 회한은 집안에서 음식을 해내고 아이를 양육하며 집이라는 공간에 행복한 활력을 불어넣었던 아내의 존재를 무게감 있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3) 차미희·강성숙·김경미·이경하·조혜란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9, 보고사, 2013, 18~27쪽.

조병덕의 <아내 덕수 이씨 제문(祭亡室德水李氏文)><sup>14</sup>에서는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며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대는 일 등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조병덕은 이러한 일들을 아내에게 ‘책임을 지웠’다는 점과 아내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안느라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했다. <아내 광산 김씨 제문(祭亡室光山金氏文)><sup>15</sup> 역시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들어도 귀를 막은 듯 알아듣지 못하고 그 근심과 그 아픔을 거둬 못 본 듯이’ 한 일을 들어 아내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가난과 집안일보다 좀 더 근원적인 원인을 가정사의 태도에서 찾은 것이다. 가정사의 번다하고 힘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 괴로움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 통한의 이유라는 것이다. 조병덕은 아내가 감당했던 ‘집안의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며, 이를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벽찬 ‘끝없는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아내의 죽음 후 세상이 변했다고 하면서 하늘과 아내까지 원망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서술자는 자신이 외면했고 아내가 감당했던 집안일에 대한 가치를 부각했다고 하겠다.

아내 죽음을 추모하면서 쓰는 제문의 양식적 특성상 회한의 내용이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며 상투적 내용을 답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문을 쓰는 남성 스스로 가장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은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한은, 우월한 성정과 청렴함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사대부 신분의 가장이라면 이를 용인해야 할 것이라고 은연 중에 내비치던 태도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대부라면 우월한 성정과 청렴한 기백을 고수하는 태도는 인정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존재로서의 남편은 사회적 존재가 용인받는 방식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 배우자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무책임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다.

14) 김현미 역주, 앞의 책, 272~274쪽.

15) 위의 책, 257~262쪽.

(5) 내 친구 장수 황씨 黃瑗(1870~1942) 계방은 梅泉의 막내 동생이다. 그의 처 안유인은 소박한 밭을 일구어 계방의 독서를 도운 것이 20여 년이었는데, 한 번도 계방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낸 적이 없었다. 피로가 쌓여 병이 들어 대한제국 융희 기원 16년 임자년 6월 24일에 죽었다. (중략) 대한민국의 초기에는 일찍이 정전의 제도가 있지 않았는데 상업을 천히 여기는 설을 헛되이 사수하여 상업을 흥기하지 않으니, 아! 토지를 점유당한 사람은 많은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만 명 가운데 한 명 정도이다. 때문에 사대부가 입으로는 도덕을 말하고 겉모습은 풍류를 꾸미지만 안에서는 서울의 부자들의 돈과 재물을 빼앗아 생업을 삼고 시골의 선비들은 하루 종일 책을 보며 중얼거리 그들 처의 근력과 골수가 뿔뿔히 말라비틀어진다.

계방은 비록 어질지만 세속과 같으니 어째서인가? 아! 계방의 나이가 이제 또 많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원컨대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 아들에게 알려 가난하지 않는 방법을 구하게 해 유인의 제사를 풍성하게 지내 유인을 위로해야 한다.

<黃[瑗]妻安孺人墓誌銘甲寅>, 金澤榮, 『韶漢堂集』 卷13, 『한국문집총간』 347, 386쪽.<sup>16)</sup>

김택영은 친구 황원의 아내가 남편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대신 생업을 책임졌으며, 이 때문에 병이 들어 죽었음을 언급하고, 그 죽음의 원인이 가장인 남편에게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김택영은 이러한 문제를 사대부 계층이 지닌 사회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서울의 사대부들이 자신의 명분을 저버리고 남의 재물을 빼앗아 상업에 힘쓰는 현상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 종일 책을 보며 중얼거리’리느라 생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시골의 선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심성이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하면서 ‘처의 근력과 골수’를 뽑아 말라 죽게 만드는 가장의 부조리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16) 황수연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8, 보고사, 2013, 285~286쪽.



그의 지적대로라면 19세기의 사대부들은 도덕과 명분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가장일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사대부라는 명분을 위해 가장 대신 스스로를 희생해온 가장의 역할을 한 부인들에게도 내세울 명분이 없는 것이다. 김택영은 황원이 이미 나이가 많아 바뀔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내가 이미 죽었기에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체념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제사라도 잘 지내주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아들들에게는 ‘가난하지 않는 방법’을 구하도록 조언한다. 사대부의 명분마저 의미 없어진 시점에서 생계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한 가족의 안위를 실제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들에게는 가정 내 가장의 역할보다 사회적 명분이 절실했다. 사대부 남성이 욕망한 것은 자기 수양을 통한 인격적 완성이거나 사회적 성공이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조선은 사대부들의 내·외적 성취가 쉽지 않은 극심한 혼란기였다. 외세 침탈의 급박한 상황에서 윤리 기강을 강화하거나 근대적 인식으로 사회 변혁을 꿈꾸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불우한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사대부 남성들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유지하려 들었지만, 사대부의 도리 차원에서 가장의 실질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가장의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명분에 얽매어 가족의 생계를 저버리는 이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실질적 책임을 묻고,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를 촉구하는 이러한 태도가 19세기에 새롭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 시기 여성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남성 사대부가 도외시한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여성이 수행한 양상과 생계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대조, 배치되는지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실제 삶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정체성 형성에 관여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 생계 주체로서의 여성 가장 형상화

여성의 가내 노동에 관한 생활사 기록은 16세기 행장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19세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여성이 집안일[産業]을 도맡아 바느질, 베짜기, 절구질 등의 여공에 힘썼다거나 집을 보수하거나 농사일을 관장하고, 음식을 차려 시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모시며 손님을 접대하는 등의 기록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향촌 여성들은 물고기를 잡아 젖을 담그고, 술을 빚고 식초를 만들며 밤이나 감을 갈무리하고 닭과 돼지를 길러 파는 등의 일을 하기도 했다. 가난한 선비의 부인들은 가사노동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생산 노동을 감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생계에 무심한 가장 대신 여성이 노동을 하여 집안 살림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는데, 19세기 자료들에는 이렇게 실제 집안을 유지하고 번성시킨 여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부각되어 나타난다.

#### 3.1. 여성 노동의 가치 인정

(6) 남편인 참봉군에게는 접문하지 않으면 감히 먼저 스스로 웃거나 말하지 않았다. 한번은 남편이 심하게 아팠는데 칼로 무명지를 잘라 피를 내어 먹여 과연 효험을 보았다. 집안 살림을 다스리는 데 부지런하여 젊어서부터 방직을 하며 늙어서도 쉬지 않았다. 더욱이 암산에 밝아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하고 없는 것으로 있게 하여 참봉군의 집안 살림이 본래 조출했으나 말년에 이르러 자못 넉넉해졌으니 의인의 힘이 컸다. (중략) 지금 물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원류를 묻는다. 의인의 덕은 이미 옛날 열녀의 반열에 들 만하고 그 영특함도 또 보통사람보다 뛰어나다. 성재의 재주는 어찌 의인이 근원이 된다고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이 말을 덧붙여 참봉군으로 하여금 의인의 기운이 성재에게 붙어 있으니 여덟, 아홉은 마치 부인이 살아 있을 때처럼 있음을 알게 하여 조금이나마 슬픔을 풀게 한다.

<河[珉甲]妻宜人慶州李氏墓誌銘庚申>, 金澤榮, 『韶濩堂集』 卷15, 『한국문집총간』 347, 409쪽.<sup>17)</sup>

위의 글은 하성재의 할머니이자 하민갑의 아내인 의인 경주 이씨(1856~1917)의 묘지명이다. 하성재가 쓴 할머니 행적을 바탕으로 남편에게 예의를 지켰던 일, 남편이 아팠을 때 무명지를 잘라 피를 먹인 일, 사리분별을 명쾌하게 한 일 등과 함께 집안 살림살이를 불린 일이 장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경주 이씨는 계산이 빨라 수입과 지출을 규모 있게 운영하여 말년에 그 집안을 넉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경주 이씨가 실제로 어떻게 살림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젊어서부터 늙도록 방적을 쉬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베를 짜서 이를 유통하여 가정 경제에 이바지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8)</sup>

이 글에서 작자는 집안 살림이 이렇게 넉넉해진 공을 의인 이씨에게 돌리고, 나아가서 손자인 하성재의 맑은 성품이 할머니인 경주 이씨에게서 근원한다고 하며 손자에게 위로의 말을 대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덕을 칭송할 때, 그 근원을 (시)부모나 남편, 가문 등에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글에서는 후손인 손자의 훌륭함을 그 할머니인 의인에게서 찾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의인 이씨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집안을 일으킨 대표적 인물로 평가되며 후손이 본받아 마땅한 전범으로 자리매김된다.

(7) 시어른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를 때에는 슬퍼함이 심하여 거의 몸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때 마침 기근이 들어 집안에 남아있던 아주 적은 곡식마저 다 떨어졌다. 그런데도 힘을 다하여 일을 마쳤다. 피부는 다 터져갔으나 힘든지도 몰랐다. (중략) 명직이 아무 것도 없이 3대의 묘를 이장했고 친족 가운데 대가 끊긴 이를 위해 후사를 세워준 이가 거의 10명이나

17) 앞의 책, 265~268쪽.

18) 방적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는 김정미, 한효정의 글 참조.

되었다. 또 혼례나 상례를 치르는 데에도 모두 유인의 힘에 기대었다. (중략) 신기가 화평하여 배고프고 춥고 아픈 것을 알지 못했다. 매년 새벽과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과 몸이 있고 없음을 묵묵히 체험하였다. 이는 마치 주자가 동안(同安)에 있을 때와 같았다.

<孺人晉州姜氏墓誌銘 并序○乙未>,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四十三, 『한국문집총간』 296, 382쪽.<sup>19)</sup>

위 글은 홍직필이 지은 尹光演의 아내 姜精一堂(1772~1832)의 묘지명이다. 강정일당은 학문과 문장으로도 인정받은 인물이었지만, 집안의 큰일을 도맡아 처리한 여성이기도 했다. 3대에 걸친 묘소를 이장하고 10명이나 되는 친족의 후사를 일일이 세우고 상례나 혼례를 치러내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 몰락한 경화 사족인 윤광연은 경제적 궁핍이 극심하여 아버지 대부터 사돈집에 기식하면서 유리했으며, 아버지의 사후에는 직접 생계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로까지 전락하여 사족 신분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인물이다.<sup>20)</sup> 서술자가 대소사를 챙기며 가문을 유지했던 공을 ‘유인의 힘’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상투적 표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술자는 강정일당이 집안일을 잘 주선했을 뿐 아니라 또한 고달픈 노동에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홍직필은 정일당 강씨가 가난하고 고달픈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것을 주자에 비견하기까지 했다. 이는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한 요구가 육체적 노동뿐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제이기도 하지만, 늘어난 부담만큼 그 역할에 대한 인정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19) 김기림 역주, 앞의 책, 260~268쪽.

20) 강원희, <행장>, 『정일당유고』, 『한국여성시문전집』, 허미자 편, 국학자료원 영인, 1558~1560쪽;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Vol.33, 2008.

(8) 재산 일구기에도 또한 법도가 있었다. 일찍이

“시어머니께서 빈손으로 일구어내셨는데 나는 능히 지키지 못했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절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친히 방직하여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절약하고 검소하게 지내 그 나머지를 잘 지켰다. 제사용 밭이 척박하여 내버려져 있었는데 단인은 배를 타고 거의 1000리를 다니면서 잘 정리하고서야 돌아왔다. 그렇게 경영하기를 8년이나 했더니 집안의 도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때때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자

“이는 선조들께서 도와주신 것이지 내 힘이 아니다.”

라고 했다. (중략) 집안의 오라비인 永燮 씨는 이렇게 말했다.

“위급한 때에 너그러워지고 가난한 중에도 힘써 일하며 조상 선영을 잘 보살피는 계획, 제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계획, 집을 다시 세우려는 계획, 힘이 그것에 미치는지 따져보고 실행하기, 올바른 이치를 지켜서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정성 등은 수염 난 남자들도 가히 따라가기 어렵다.”

<端人洪氏行狀 甲午>,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卷之五十, 『한국문집총간』 296, 540~542쪽.<sup>21)</sup>

단인 홍씨(1787~1833, 흥병철의 딸, 권용경의 妻) 역시 방직, 토지 정리 등의 경영을 통해 집안을 일으킨 인물로 높이 평가된다. 그의 가정 경영에 대해 홍직필은 “재산 일구기에 법도가 있다[治産亦有度]”고 했다. 그리고 친척 오라비는 그가 계획을 잘 세워 규모 있게 일처리를 했으며, 융통성 있고 성실하면서도 과단성 있게 이끌어간 점 등을 칭찬하면서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했다. 단인 홍씨는 노동력 제공 차원에서 나아가 재산 관리와 경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여성들의 헌신적 노동과 가산 경영에 대한 평가는 19세기 자료에서 조목조목 노동의 내용이나 경영의 방법을 기술하는 형태로 좀 더 구체적으

21) 김기림 역주, 앞의 책, 345~351쪽.

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능력이나 태도를 남성, 나아가 聖人에게 비견하며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역시 이 시기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점이다. 여성은 어쩔 수 없이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어 사대부 남성의 명분과 일상적 요구의 간극을 메우며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이들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기록되면서 여성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나 기준이 전대에 비해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 3.2. 관계 형성의 주체

여성이 가장을 대신해 살림을 꾸러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함께 할 노비, 한 집안에 사는 친인척, 원근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만 했다. 여성의 덕성을 드러내기 위해 시부모나 남편, 친척, 빈객에 대한 헌신과 함께 노비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한 사실을 거론하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

(9) 당시 둘째 시동생과 작은 시누이 모두 관례와 계례를 올리지 않았고, 셋째 시동생은 겨우 이가 난 아이였으며, 넷째 시동생은 품에 안겨 있을 때여서 어린 아이의 상황이 다급하였고 부모 잃은 슬픔도 몹시 심하였다. 부인은 시어머니가 애써 길러주신 정을 생각하고 시동생들이 의지할 데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함께 살고 기르면서 굶주림과 추위를 나누었다. 때를 벗겨주고 이를 잡아 주었으며 더러운 옷을 새로 빨아 주었다. (중략)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있는 것을 아껴서 봄가을의 享祀 및 보름과 초하루 아침의 제사에 쓰셨다. 과일과 생선, 쌀도 모두 배를 짜서 마련하되, 제기에 올라가는 음식은 옛 것을 바꾸지 않으셨다. 또 그것으로 군자를 받들고 여러 시동생들을 대접하며 아이들을 기르고 노비들을 거두셨다. 그리하여 남편에게는 그 집안일을 잊게 하시고, 시동생들은 공부에 전념하게 하셨으며, 자녀들은 학업에 게을리 하지 않게, 노비들은 일을 잃지 않게 하셨으니, 부인이 집안을 잘 다스리신 덕분이었다. (중략) 부인께서는 여러 아들이나 며느리, 딸이

나 아들, 손자와 손녀 등이 앞에 죽 서있을 때, 비록 낮고 덜한 사람은 있었지만 예뻐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똑같이 대하셨으니 尸鳩의 덕에 부합하셨다. 사람들을 대하거나 종들을 접할 때에도 공평무사하셨으며 옛날의 악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니, 남을 시기하고 해를 끼치려 하는 자라 하더라도 끝내는 원망하거나 탓하는 빛이 없었다. (중략) 恩愛가 그 유모에게도 미치고 유모의 아들에게도 미쳐, 유모가 3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섬에서 어머니 없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끝내 떠날 의사가 없었다. 작은 시누이 이숙인이 죽자 아들 學이 고아가 되어서 의지할 데가 없었다. 그러자 학을 오게 하여 자식처럼 어루만져 키워서 듬직하게 장성시켜서는 관례를 올리고 장가를 보내셨다. 둘째 언니인 안씨는 성품과 행동이 단아하고 정숙하였는데 소심하고 무서움을 많이 타 청상과부가 된 뒤로 부인에게 의지하여 살았다. 같은 집에서 21년을 살면서도 처음 왔을 때처럼 하였고, 세월이 오래 되어도 서로 공경하였다. (중략) 여동생 이유인은 만년에 과부가 되었는데 남편의 집안이 모두 가난하여 의지할 데가 없으셨다. 부인은 그와 함께 근심을 나누면서 언제나 두루 돌보아 주셨다. 그러나 또한 친정 식구에게 베푸는 은혜가 혹 두 시동생보다 지나칠까 경계하여 헤아려 節損하였으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공평하게 하셨다.

<先妣遺事> 申紳, 『石泉遺稿』 卷2, 『한국문집총간』 279, 517쪽.<sup>22)</sup>

위의 글은 신작이 어머니 연일 정씨의 생전 행적을 기록한 글이다. 연일 정씨는 시동생들을 자식처럼 기르고 남편, 조카뿐 아니라 친정 식구까지 두루 챙겼다. 이 과정에서 친정과 시댁 식구에게 공평하게 베풀었다는 사실이 강조되는데, 이 공평무사함에 대한 강조는 노비에 대한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정씨가 유모나 유모 아들에게 은혜를 균등하게 베풀었다는 언술이 그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에서는 노비들에게 공평하게 대한 것이

22) 앞의 책, 558~579쪽.

은혜 베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한 점에서 부각된다. 절기마다 일마다 연일 정씨는 노동력과 재화를 운용하기 위해 사람들과 충실히 관계를 유지하며 생계를 꾸려가는데 주체적 역할을 수행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은 가장인 남성이 생계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부분의 양반 가정에서 가계를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집 안팎의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켜갔다. 특히 19세기 자료에서는 노비에 대한 태도가 어떤 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8세기 이전의 자료에서는 주로 단순히 노비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인간적으로 대우한 사실에 주목한 반면, 여기서는 여성이 가장으로서 ‘노비들이 일을 잃지 않게’ 한 것을 治家의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한 것이다.

(10) 해마다 도톨밤과 감을 줍고, 물고기와 게를 잡고, 닭을 기르고, 벼를 수확하여 봄가을의 節祀에 대비하셨다. 제기 위의 음식은 풍성하고 정갈했으며, 나물과 고기를 자르고 나누는 것을 손수 다스리셨다. 종묘에 제사 지내는 것에 정성과 공경이 돈독하고 지극하셨으니, 마치 귀신이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셨다. 남자 종과 여자 종들에게 일과를 정해주어, 부지런히 힘써서 맡은 바 일을 완성하도록 하셨다. 밭이랑에서는 김매기를 그만 두지 않으셨으며, 벼들에서는 씨줄을 거두지 않으셨다. 1년 농사가 끝나면 매번 쌓아놓은 것에서 넘치는 것을 계산하여 아래위로 골고루 혜택을 입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환곡을 갚게 하셨다.

친인척들과 두루두루 화목하고, 이웃사람들이 그에 힘입어 살았다. 한 오라기 실낱같은 종사를 부지하고, 후세에 영원토록 집안의 법도를 드리우셨다. 대개 그 덕성이 깊고 진실하며 지혜와 사고가 확 트여서 넉넉하게 남자의 기상이 있으셨다. 너그러움으로 포용하고, 성실함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근검함으로 완성하셨다. 그 일은 부유해지기 쉬웠고, 그 가르침은 행하기 쉬웠다.

그러므로 부인께서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힘쓰신 바의 것은 무덤 아래



척박한 밭 몇 이랑에 불과하셨으나, 그러나 그 공적을 살펴보면 공은 무성하고 덕은 널리 퍼졌다. 그 집에 단청을 올리고 묵은 밭에 씨 뿌리고 김판자는 거의 다시 유감이 없었다. 그러므로 무릇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자는, 땅이 넓지 않고 사람이 많지 않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세우고 기강을 바로잡고 정책을 진작시키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따름임을 알게 되었다.

<外祖母柳夫人行狀>, 申緯, 『石泉遺稿』 卷1, 『한국문집총간』 279, 494쪽.<sup>23)</sup>

위 글은 신작이 기록한 외할머니 유씨 부인의 행장이다. 유씨 부인은 시아버지 鄭齊斗와 남편 鄭厚一을 잘 봉양했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여의게 되자 從死하지 않고 홀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데 힘썼다. 유씨 부인은 권세 있는 자가 친정 묘역을 침범하자 소송과 투쟁을 불사하여 결국 물리칠 만큼 강인한 기상을 지닌 인물이었다. 혼자 살림을 건사하며 밤과 감을 갈무리하고 물고기와 계를 잡으며 닭을 기르고 버를 수확했는데, 일련의 일들을 해내려면 노동력을 조달할 노비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는 양반 부녀자의 경우 노비는 가정 경영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 조선시대 부녀자들의 교훈서에 노비 다루는 법이 꼭 들어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씨 부인은 노비들에게 맡은 바 일을 명확히 지정해주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수확한 것을 계산하여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실제로 일의 실적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던 바, 그 집에서 단청을 올리거나 밭일을 도와준 자들이 유감이 없었다고 했다. 일거리의 배분과 그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 관계뿐 아니라 친인척, 이웃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조화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신작은 이러한 외할머니의 지혜와 사고

23) 앞의 책, 524~534쪽.

가 집안을 세운 원동력이었음을 언급했다. 효율적 업무 관리와 합리적 보상을 그 덕성과 연결시키면서 인력 관리 능력을 부각한 것이다.

### 3.3. 治産을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

물욕에 담담한 자세를 미덕으로 여긴 사회에서 사대부는 그 청렴한 덕을 지키는 것을 본분으로 삼았으며, 婦德 역시 남편의 뜻을 받들어 가난을 편안히 여기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따라서 재물을 불리는 治産이나 이득을 위한 상거래, 고리대 등은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가장인 남편이 治産하지 않거나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실제로 여공을 하여 생계를 유지했고, 방적, 토지 매매, 심지어는 고리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산을 불려 집안을 일으켰다. 19세기 사대부 남성들은 이러한 처산 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같은 글 내에서도 ‘치산 능력’과 ‘물욕 없음’, ‘무능력함’이 상충되면서 배치된다.

(11) 날마다 쓰는 물건들도 번거롭게 장부 정리를 하지 않았으며 털 한 오라기도 나누어 밝혀 손가락으로 계산하면 모두 맞았다. 병이 든 후에 혹시 빠뜨리거나 착오가 생기면 탄식하며,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였다.

재화와 물건에 담박하여 기호가 없었으며 평생토록 사사롭게 쌓아둔 것이 없었다. 갓 시집을 때 약간의 쓰개와 치마, 비녀, 귀고리 등이 있었는데 아끼지 않고 팔아서 어머니의 아침저녁 거리와 땀감 밀천으로 삼았다. 그것을 입고 쓸 때가 되어서도 또한 그 군색한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중략) 계획하고 헤아려 짐작하는 것이 때로 신처럼 사람의 사정을 살피니 터럭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았다.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 그렇게 했다. 평소에는 물러나 있어 마치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했는데 내가 간혹 물으면 번번이 이렇게 말했다.

“부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록 안다 하더라도 또 어찌 말할 수 있겠

습니까?”

<言行記>, 沈魯崇, 『孝田散稿』 6冊.<sup>24)</sup>

심노승은 부인 전주 이씨(1762~1792)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따져보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신의 능력에 비견했는데, 계산 능력이 뛰어나 일일이 장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심노승은 전주 이씨가 뛰어난 일처리 능력을 지녔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지녔음을 더욱 훌륭한 덕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12) 그 하나도 힘써서 자급하는 중에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셨지만, 있고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50년을 이끄셨으니 이것은 특히 婦道와 母儀의 최고[稱首]이실 뿐 아니라 그 처리하시는 것[經紀]의 주관과 규모, 계획의 조리가 만약 이모님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더라도 물을 담아도 새지 않고 자유롭게 칼을 놀리시는[游刃恢如] 뛰어난 경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에도 곡진하고 삼가신 것을 모두 적어놓아서 가르침으로 삼을 만하니, 비록 줄이고 축약하여도 그렇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른바 어지러운 세상[板蕩]의 때를 받아서 맡으셨다가 이제는 훌쩍 큰 아들에게 맡기실 만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부인께서 당해내셨던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수렴이라고 칭찬하면서 시아버님과 며느리를 둘 다 든 것은 이에 이르러서야 제가 의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祭姨母贈貞敬夫人李氏文>, 柳疇睦, 『溪堂集』 卷12, 『한국문집총간』 313, 457쪽.<sup>25)</sup>

위의 글은 유주목이 이모인 연안 이씨(이재연의 딸)의 제삿날 지은 제문이다. 유주목은 연안 이씨가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녀 50년 동안이나 자급할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모의 이

24) 차미희 · 강성숙 · 김경미 · 이경하 · 조혜란 역주, 앞의 책, 18~27쪽.

25) 김현미 역주, 앞의 책, 373~376쪽.

능력을 국가 경영에 쓴다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도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집안을 기틀을 세워낸 경영 능력을 지녔다는 언술은 ‘있고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보편적 부덕의 상투적 표현과 만나면서 묘한 균열을 일으킨다.

(13) 돈을 빌려줄 때에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이자를 받았고, 구휼할 때에는 반드시 곤궁한 이들에게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작은 온정과 하찮은 의리로 대하지 않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았고 아래위로 이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자녀가 잘못을 하면 문득 꾸짖어 사사로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고상하고 청렴하여 자기의 소유가 아니면 터럭 하나라도 취하지 않았으니, 그런고로 비록 몹시 군색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상스럽고 구차한 말이나 표정을 말씨와 행동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귀하고 영달한 것을 보아도 부러워하지 않았으며, 또 事務에 널리 통하여 길쌈과 요리 외에 醫藥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 빈틈이 없었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며 상황을 헤아리는 데 오류가 없었으며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작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간의 부녀들이 문장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심히 그릇되게 여겨 흰히 꿰뚫고 있는 고금의 사실이 많았으나 이는 척하지 않고 오직 누에 치고 실 뽑으며 옷 바느질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부녀자들의 편협한 성품과 아양 떠는 행동을 떨어버리고 부녀의 몸으로서 장부의 풍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졸박하고 행실이 검손하여 스스로 몸가짐을 삼가 엄정하고 끈은 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절도가 있어 지엄한 분수를 잃지 않았고, 비록 안방 이부자리 안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고 은밀한 예절도 조금도 방종하게 하지 않았으니 여칙과 婦道로 헤아려보더라도 또한 거의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祭故室宜人宣城李氏文庚申>, 李頤淳, 『後溪集』 卷8, 『한국문집총간』

269, 258쪽.<sup>26)</sup>

위의 글은 이이순이 아내 의성 이씨를 위해 쓴 제문이다. 이이순은 아내 의성 이씨가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으나 검소했고, 친정 부모에게 효성스러웠으며,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냈고, 남편을 義로 섬기고 자녀를 엄격하게 기르는 등 婦道를 갖춘 여성이었다고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길쌈뿐 아니라 양잠, 바느질, 요리와 의약에 대해서도 조예가 있는 이상적인 내조자로 기술한다. 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칙’과 ‘婦道’였는데, 겸손하고 분수를 잃지 않는, 청렴한 성품까지 갖춘 여성으로서 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이순은 의성 이씨가 곡식, 소금, 세금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서로 된 장부로 관리했다고 밝혀 경제관념에 밝은 인물이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의성 이씨는 일반적인 여성 교화서에서 제시하는 여성의 절목을 따르지 않았음을 남편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이순은 아내가 이자를 받았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기술한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은 부녀자들에게 금한 사항이었지만, 의성 이씨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이순은 아내의 이윤 추구의 윤리성이 아니라 자금 운용 방식의 합리성에 더 주목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려 한 점이 엿보이는 것이다.

조선후기 가정 경제를 책임졌던 여성들은 온갖 가정사를 챙기고 생산 노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해나갔지만, 부덕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19세기 자료에서는 이러한 여성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업적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 여성의 치밀한 계획성, 조리 있는 일처리 능력, 합리적 재산 운용 능력 등 가계 경영 능력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

26) 홍학회 역주, 앞의 책, 77~87쪽.

한 편의 글 안에서 전통적 부덕의 요건과 뛰어난 경영 능력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병치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물욕에 담박하고 아는 것이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 전통적 부덕의 요건이었지만, 19세기에 오면 가정 경제를 일으켜 집안을 세운 여성들의 실질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치산의 구체적 사례가 전통적 부덕의 항목과 배치되더라도 서술자가 이를 드러내 기술한 점 역시 이 시기 여성 인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 4. 19세기 여성 가장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 남성 사대부가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 수행한 여성의 역할이 크다. 19세기 여성 생활사 자료에서 드러나는 가장 남성은 여전히 가정 내에서 권위를 인정받으면서도 실제로 생계에 대한 책임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김택영은 <황원의 아내 안유인 묘지명>(예문 5)에서 어질기만 하고 관습에 젖어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지도, 해결하려 하지도 않은 황원의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시골의 선비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살아갈 방도를 구하지 않아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비판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비라 할지라도 상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역설했다. 이렇게 본다면, 사대부의 도리라는 것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김택영은 이 시기 양반 남성에게 사대부의 권위보다 먹고사는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19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에 보이는 대다수 남성 사대부의 기술에서는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며, 이러한 가장의 부재는 여성 가장의 존재를 드러나게 했다. 조선시대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사대부로서의 이상적 성취[인격수양/ 입신양명]였기 때문에,

가정 내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가정 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은 종종 여성에게 부여되기에 이르렀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성 사대부들은 여성 가장에게 그 남성성에 대한 찬사를 보내거나 근대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등 여성에게서 남성적 미덕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 4.1. 비교를 통해 강조되는 남성성

신작은 <외할머니 유부인 행장>(예문 10)에서 집안에 법도를 세운 외할머니의 덕성과 지혜, 식견을 ‘남자의 기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기술했고, 홍직필은 <단인 홍씨 행장>(예문 8)에서 위급해서도 너그러움을 잃지 않는 성정과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따져가며 이를 실행한 단인 홍씨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수염 난 남자들도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한 바 있다. 주로 시집가기 이전의 지혜로운 성정이나 열녀로서 강인한 정신력을 평가할 때, 그리고 집안을 일으킨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때, 여성은 남성의 능력, 남성적 가치, 덕목에 비견된다. ‘남자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대 남성들에 대해 그보다 나은 역할 수행을 요청하는 한편, 여성에게도 남성과 견줄 수 있는 덕목을 계속해서 강도 높게 요청하는 것이다.

신작의 <어머니 유사>(예문 9)나 홍직필의 <유인 진주 강씨 묘지명>(예문 7)에서는 『시경』에서 나타나는 공평무사한 군자의 모습과 화평한 정신적 경지를 보여준 주자의 예를 거론하면서 여성 가장의 실천적 덕목을 높이 평가했다. 유가의 전범인 성인을 여성 행적 평가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단순히 여성에게 이러한 가치를 체현하기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이들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행위를 평가할 때 남성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가나 남자보다 낫다는 평가는 19세기 여성생활사자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남성성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항목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평가

는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두드러진다. 묵묵히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집안을 일으킨 행위는 실제로 사대부 남성 가장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사대부 남성 작가는 사대부 남성 가장의 명분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채워낸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여성이 지배·보편에 동일시되는 남성성을 갖지 못한 존재, 남자 아닌 존재여서 배제되었던 존재론적 정체성과 배치되는 것이다. 탁월한 식견과 포용력, 판단력 등 가정 경영에 필요한 덕목이 가정으로서의 남성이 아니라 여성의 능력으로 적극 평가된 것은 여성 성역할의 범위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화된 가치에만 매달리느라 남성성의 영역을 협소화했던 남성 사대부 대신 여성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억압적인 성역할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성 성역할이 남성적 덕목 수행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 4.2. 계획성, 정확성, 효율성

19세기 여성 가장에 대한 평가는 그 남성적 가치 수행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행위가 근대적 효율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주목은 <정경부인에 추증된 이모 이씨 제문>(예문 12)에서 조리에 맞도록 계획하고 일을 규모 있게 주관하여, 빈틈없으면서도 자유자재로 일을 처리하는 이모의 모습을 부각했다. 여기서 그는 계획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것이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 나갈 중요한 자질이라고 평가했다.

심노승의 <언행기>(예문 11)와 이이순의 <아내 의인 의성 이씨 제문>(예문 13)에서는 치밀하게 계획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이 경영하는 능력과 함께 정확한 계산 능력과 오류 없는 상황 예측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정확성은 신작의 <외할머니 유부인 행장>(예문 9) 가운데, '1년 농사가 끝나면 매번 쌓아놓은 것에서 넘치는 것을 계



산하여 아래위로 골고루 혜택을 입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환곡을 갚게 하셨다'라는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확한 계산능력은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며 이윤을 철저히 계산하여 빚을 갚고 식솔들을 관리, 통제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 능력이나 상황 예측 능력은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서 효과적으로 발휘된다. 노비들에게 할 일을 정확히 정해 역할을 분담시키고, 독려하여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예문 10)이 집안을 통솔하는 이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 여성가장은 집안 내 구성원들을 철저히 살피고 적절하게 대우하여 집안 살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평무사한 태도가 긍정적 가치로 고려되었는데(예문 9), 이는 늘 편협하고 치우친 성정을 지녔다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19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에서 드러나는, 가장으로서 여성이 지닌 능력에 대한 평가는 남성적 덕목 실현과 결부되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가 상투적인 관습적 표현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제 덕목이 계획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같은 근대적 가치와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삶, 일상생활, 살림살이에서 이러한 덕목을 실천한 것은 당대 사대부들이 아니라 이들의 남성성을 실제로 떠받치고 구현해낸 여성 가장들이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권위적 위상만을 지녔던 사대부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그 남성성의 덕목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 가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 여성들은 그들의 역할을 확대해가면서 편협하다고 평가되어왔던 여성 성역할을 확장시켜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나오며

19세기와 20세기 초는 유교 이념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해체되는 시기

이다. 이러한 시기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성차에 관한 지식’이란 점을 염두에 둘 때, 남성 문인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구성한 기록들을 연구하는 일은 여성생활사의 재구는 물론 조선시대 젠더 연구로 나아가는 긴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조선후기 남성 사대부는 스스로 우월한 성정을 드러내고 청렴한 덕을 강조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 했다. 가장인 남성의 이러한 태도는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성 때문에 실제로 살림을 책임지게 된 여성이 얼마나 과중한 부담에 시달렸는지 드러나게 된다. 여성 가장은 생계를 책임지고 가산을 일으키는 주체로, 집안의 가족 구성원과 노비, 이웃과의 관계를 꾸려나가는 관계적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여성이 갖는 위상의 한계 때문에 그들의 치산 능력은 청렴한 자질과 상충되면서 긴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19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에서 가장 역할을 한 여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남성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남자, 군자, 또는 성인에 비견되는 여성 가장의 치산 행위는 근대적 가치인 계획성, 정확성, 효율성의 가치와 접목되면서 남성적 가치를 재고하는 한편, 편협하다고 평가되어 오던 여성 성역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19세기 가장의 역할을 통해서 본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은 여성의 억압적 성역할 내면화에 기인하기보다 남성 성역할 내부의 갈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감당할 수 없는 이상화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성 사대부는 우월한 성정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관료/유학자로서의 역할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가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된 여성이 자신의 성역할을 확장하여 남성적 미덕과 가치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 참고문헌

『경국대전』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朱子家禮』

柳希春, 『眉巖日記』

吳希文, 『쇄미록』

申佐模, 『澹人集』

金邁淳, 『臺山集』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韓章錫, 『眉山集』

沈魯崇, 『孝田散稿』

趙秉憲, 『肅齋集』

金澤榮, 『韶濩堂集』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成海應, 『研經齋全集』

申 綽, 『石泉遺稿』

柳疇睦, 『溪堂集』

李頤淳, 『後溪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00321](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00321).

홍학희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 보고서, 2013, 1~828쪽.

김기림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3, 보고서, 2013, 1~502쪽.

김현미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5, 보고서, 2013, 1~

530쪽.

서경희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6, 보고서, 2013, 1~671쪽.

황수연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8, 보고서, 2013, 1~382쪽.

차미희·강성숙·김경미·이경하·조혜란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9, 보고서, 2013, 1~467쪽.

강원희, <행장>, 『정일당유고』, 『한국여성시문전집』 4, 허미자 편, 국학자료원 영인, 2004, 1457~1611쪽.

남미혜,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2010, 1~334쪽.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제도 연구』, 지식산업사, 1998, 1~315쪽.

R. 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1~448쪽.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2012, 189~219쪽.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2012, 85~117쪽.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Vol.33, 2008, 369~406쪽.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2, 일지사, 1976, 67~96쪽.

한효정, 『17세기 전후 양반가 부인의 경제생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1~149쪽.

## Abstract

### The Clearance and Negotiation of Men/Women Gender Differences in the Field of Late Joseon Dynasty(19th Century) Daily Life

-Focusing on the Women's Daily Life History as a Matriarch-

Kang, Sungsook

I have considered the aspects of women's behavior as a matriarch on the 19th century women's daily life history materials. The patriarch i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family property and leading the household members, but the noble patriarch has done nothing but repenting of his own irresponsibility as a patriarch standing on the thoughtlessness(迂闊), the integrity(清廉). In place of the noble patriarch, the mistress of a house becomes the matriarch who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living. In the 19th century women's daily life history materials, the value of women's labor and women's ability that manages the property and people are estimated positively. Therefore the matriarch's virtues in the 19th century have been in discord with the traditional womanly virtues(婦德). The matriarch's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at is compared with a man, a man of honor(君子), a sage(聖人) is characteristic of the planning, the correctness, the efficiency as the modern virtue, that positively expanded the category of the women's gender role.

Key words: late Joseon dynasty, 19th century, women's daily life history, noble patriarch, matriarch, thoughtlessness(迂闊), integrity(清廉), women's labor,

managing the property and people, womanly virtues(婦德), modern virtue, planning, correctness, efficiency, women's gender role.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